



무주군,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 대상 영화 관람 진행

무주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580명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와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관장 김도현)이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문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5일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580명이 참여해 무주산골영화관에서 한국영화 '좀비말'을 관람했다.
한편, 무주군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에 위탁해 정담 인력 등 2천 7백여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0명 정읍 체험 성료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0명을 초청해 '어서와~ 정읍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을 모집해 정읍의 정책과 현장을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정읍시 귀농귀촌정책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국가요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백년전통 쌀고을시장을 방문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봤다. 이어 소성면 꽃두레행복센터와 햇빛정원, 산림조합, 진미농원, 정심마을 등에서 진행된 농촌융복합 체험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실제 귀농귀촌 생활을 경험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황산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우울 예방 교육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노인일자리사업 '어우렁더우렁' 참여자를 위한 우울 예방교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총 24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최예지 강사가 강연을 맡아 어르신들은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우울증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노년의 우울의 이해, 스트레스 관리법, 우울증 예방법 및 대처전략 등이다.
강기태 황산부면장은 "앞으로도 황산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 선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을 다 할것”

전춘성 진안군수는 22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춘성 진안군수의 부회장 선출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전국 7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포럼과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34개 군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건의사항 및 지역상생 직판행사 추진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지금 농산어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농산어촌지역 군수님들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교통산 국민관광지에 파스쿠찌 카페 · 매점 오픈

자활근로 참여자에 안정적 일자리 기회 · 방문객에게는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교통산 국민관광지(산성순환길 713)에 자활근로사업 신규 사업자인 '파스쿠찌 카페'와 '3분마트 매점'을 9월 26일 개점할 예정이며, 현재 두 곳 모두 임시 개장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점하는 카페와 매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산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로 5천만원을 확보,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등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추진, 안락하고 분위기 있는 사업장을 조성했다.
남원시는 지금까지 '달구소베이글' 베이커리 카페, '베트남 골목식당' 쌀국수전문점, '짜다김밥' 분식점, '매머드 익스프레스' 카페, 청년자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춘근 센터장은 “자활센터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 기능 습득 지원,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파스쿠찌 카페는 청년 맞춤형 사업 단으로써,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3분마트는 저소득 40~60대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공공형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동동동, 찾아가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남원시 동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시 10월 3대 축제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찾아가는 대대적인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로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원누리시민가입 홍보, 10월에 펼쳐질 남원시의 '가을 3대 축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3회 홍부제 △2025 국가유산 여행까지 종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3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자천시 선구동'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하며, 자매결연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라더미싱 남원점 황의형 대표, 금동에 백미 전달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부라더미싱 남원점 황의형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직접 농사지은 햅쌀 20kg 13포(260kg, 환가액 약 73만원)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라더 미싱은 지난 15년 동안 명절마다 어김없이 금동주민센터에 쌀을 기탁하여 나눔을 이어온 착한 가게로 꾸준한 선행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전달된 백미는 금동 관내 10개 경로당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이 매일 함께 드시는 식사 자리에 따뜻한 밥상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황의형 대표는 “직접 농사지은 쌀인 만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중앙유치원생과 함께 소방안전체험

고창소방서는 지난 19일 중앙유치원 원생들을 소방서로 초청해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대피 방법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화재대피 체험 △소방차 탑승 체험 △방수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차 탑승과 방수 시연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화재대피 체험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